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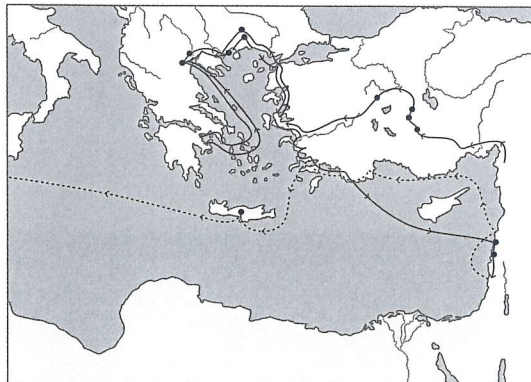
제 57, 58 강 허영의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 성경본문 고린도전서 1:1-16:24, 고린도후서 1:1-13:13 ■

프렐류드(Prelude)



바울이 편지를 쓴 도시들



바울의 전도 여행

오늘 우리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주제로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밖으로는 바울을 배신하고, 안으로는 내분에 휩싸이는 타락한 교회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답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1. 교회 파당과 분쟁(고전 1:10-4:21)
2. 혼인에 관한 문제(고전 7장)
3.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문제(고전 8:1-11:1)
4. 여성 문제, 성찬 문제(고전 11:2-34)
5. 은사 문제(고전 13장과 14장)
6. 부활 문제(고전 15장)
7.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제 문제(고전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의 신앙고백과 사도직 변호 그리고 헌금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분열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비극적인 보고는 당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의 마음과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격한 언어로 그러나 사랑을 담은 언어로 충고를 보내야 했습니다.

I. 주요 내용

1. 교회의 일치와 질서(고린도전서 1:10-4:21)
2. 영적 은사(고린도전서 12:1-11)
3. 가장 중요한 사랑(고린도전서 13:1-13)
4. 성도들을 위한 헌금(고린도후서 8:1-9:15)

II. 시대적 배경

〈연대표〉

고린도전후서
(주후 54-57)

1. 고린도 교회의 역사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하여 18개월 가량 체류하는 동안 설립되었습니다(행 18:1-7).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으며(행 18:4, 8, 10), 이방인 신자가 대다수였고(고전 12:2), 약간의 유대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습니다(행 18:8).

그들은 주로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으나(고전 1:16), 그리스보라는 사람처럼 몇몇 부자도 있었습니다(고전 1:14; 행 18:8).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고린도는 부요한 항구 도시로서 사치와 부도덕과 이교 신앙이 난무했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2. 고린도전서의 기록 목적 및 장소와 시기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의 당파 싸움, 신도간 소송사건, 혼인, 우상의 제물, 여자들의 예의, 주의 만찬에서의 차별, 성령의 은사와 부활에 관한 문제들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접한 바울은 깊은 비애와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임하는 제자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 화해를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편지는 에베소에 3년간 체류하는 동안에 썼으며, 때는 주후 54년에서 57년 사이로 봅니다.

3.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 및 장소와 시기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을 돌아 본 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혐담이 난무하였습니다. 가짜 사도라는 비난에서 시작하여 연보(현금)을 횡령하는 자라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에 대한, 특히 거짓 사도라는 비난에 대하여 바울은 신앙고백과 함께 사도직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주후 56년경 제 3 차 전도여행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쓴 것으로 봅니다.

III. 말씀과 해석

1. 교회의 일치와 질서(고린도전서 1:10-4:21)

바울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배척할 뿐 아니라 안에서는 당파들을 만들어 주도권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든 당파는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독소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 파라는 이름으로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보를 접한 바울은 먼저 큰 두 파로 나뉘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향하여 십자가의 도와 능력을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보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된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로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만든 당파는 오히려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구원을 분담하는 분담사역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고전 3:6) 이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각기 달리 부름 받은 종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구원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당파 문제를 하나님의 사역의 역할론으로 해결하려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충고를 보냈습니다.

2. 영적 은사(고린도전서 12:1-11)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종교적 열정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각종 방언 말하는” ‘방언’의 은사였습니다(고전 12:10).

성경은 방언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 6절에 나오는 “방언”과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각종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성령의 역사이고 고린도교회의 방언은 개인이 받은 영적은사입니다. 개인 방언은 자신도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다른 은사인 “방언들 통역”(고전 12:10)을 통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방언”을 은

사 중의 낮은 은사로 보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방언을 포함하는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큰 틀과 구조 안에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방언 통역’은 모두 성령의 은사이지만, 이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섬김의 사역이라 했습니다(고전 12:9-10, 27).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한, 은사는 사역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해는 근대 사회학이 중요하게 다루는 ‘조직 이론’(System theory, 혹은 체제이론)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를 연결하는 유기성 같은 것입니다.

3. 가장 중요한 사랑(고린도전서 13:1-13)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사는 많은 은사 중에서도 ‘사랑’의 은사였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제일 좋은 길”(고전 12:31)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의 동기이며, 내용이고 완성입니다.

‘사랑의 찬가’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방언, 예언, 지식, 믿음, 희생, 모든 은사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모두가 헛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바울은 여덟 개의 부정사(否定詞)와 일곱 개의 긍정사(肯定詞)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사는

1.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2. 자랑하지 아니하며,
3. 교만하지 아니하며,
4.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5.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6. 성내지 아니하며,
7.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8.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긍정사는

1. 사랑은 오래참고,
2. 온유하며,
3.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4. 모든 것을 참으며,
5. 모든 것을 믿으며
6. 모든 것을 바라며,
7.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들이지만, 사랑은 영원함을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일시적인 예언이나 방언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그리스도의 재림의 도래) 무의미해지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남아 빛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아가페이며, 믿음과 소망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3:7).

4. 성도들을 위한 헌금(고린도후서 8:1-9:15)

바울은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교회에게 연보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힘껏 연보를 하였습니다.(고후 8:1-3).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인색하여 연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고린도교회 신자들은 이 권유를 들어 바울을 사기범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고후 12:16-17).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아끼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신과 온갖 욕설로 비방을 당하면서도 다마스쿠스에서 만난 부활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고후 11:31-33).

IV. 성찰과 나눔

1. 오늘 우리가 순례한 고린도전.후서는 찢어지고 상한 바울의 영혼의 절규를 담은 애절한 서신입니다. 자신이 세우고 키운 고린도 교회의 신도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온갖 비방과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파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아버지인 바울을 향해 거짓 사도로, 헌금을 횡령하는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의 뒷 모습이 바울이었습니다.

2. 고린도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들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전형적인 모형이었습니다. 편 가르기, 권력 싸움, 명예다툼, 종교적 환상 놀이 등 이 세상이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양과 이리가 공존하는 혼합체’입니다.

3. 그러나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따뜻한 사랑의 충고로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1) 은사의 여러 가지 -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 ‘사도’, ‘선지자’, ‘교사’ 등 ‘다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성령의 은사라는 것.

(2) 그러나 이 다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소중함 ‘지체’이고 ‘은사’라는 것.

(3) 이것을 신학에서는 many in One 혹은 One in many로 표현합니다.

(4) 이것은 교회가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인가를 풀어가는 놀라운 해답이고 방향이었습니다.

4. 특히 성만찬에서 자주 제외되는 노예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격노하여 성만찬 때 음식을 가져오는 부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고전 11:22) “... 내 형제들(노예들)이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전 11:33)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당시 성만찬은 애찬을 겸한 공동식사였으며, 진작 배고픔을 면해야 할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5. 그러나 바울은 인내를 가지고 신앙의 충고를 계속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 때문이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고전 15:22, 42-44) 사랑하고(고전 13장)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에 부름 받은 분량대로 섬긴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는... 각각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 3:7-8)

바울의 신앙고백은 오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주는 따뜻한 사랑의 충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동역자라는 교훈입니다.